

사이버보증시장의 리더

디지털 건설환경의 뉴-프론티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인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PLANT & MECHANICAL CONTRACTORS FINANCIAL COOPERATIVE OF KOREA
www.seolbi.com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1차 총회(임시) 개회사 앞으로 10년은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성장할 새로운 기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찬재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시작되는 이때, 여러분을 모시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1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회에 참석하시어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8.31 부동산 정책 이후 주택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우리 건설업계는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시는 조합원사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새해에도 연초부터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급속도로 둔화되고 이로 인해 무역흑자 또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수도권 신도시건설, 지방혁신 및 기업도시건설 등 많은 부분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해에도 조합 임직원은 조합원이 발전해야 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조합원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우리 조합 창설 당시 조합원사는 2,960개 사였으나 2005. 12월말 현재 5,189개 사로 75% 증가하였으며, 자본금도 1,500억원에서 2,218억원이 증가한 3,718억원으로 148% 성장하였고, 좌당 지분액도 창설 당시 82만 4천원보다 8만4천5십원이 많은 90만8천5십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대의원님 여러분과 조합원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합 운영에 내실을 기하므로서 조합 재무구

조의 건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조합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경영목표를 '조합원과 하나되는 조합'으로 정하고 지나온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10년이 우리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성장할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 아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소하는 살아 움직이는 조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신용거래를 대비하여 조합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신용거래조합원의 개인연대보증 미입보에 대한 보증수수료 50% 및 운전자금융자금 이자 20%의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보증수수료 요율을 평균 30% 인하하여 조합원사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4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G2B 전자보증 외에 조합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일부민간공사에 대하여도 보증 채권자에게 인터넷으로 보증서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보증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함으로써 조합원 여러분께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잠시 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5년도 경영성과 보고겸 결산서(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영업수익이 108억5천만원, 영업외 수익이 126억7천만원으로 합계 235억2천만원입니다. 비용은 영업비용 229억4천만원, 영업외비용 3억7천만원으로 합계 233억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2억8백만원이고, 동 이익금에서 법인세 1억9천7백만원을 공제하면 순이익은 1천1백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온 사유는 IMF 기간 중 도산된 조합원사의 대형 보증사고 부분을 상각 처리하여 2005년 결산에 반영하고, 그 후속조치로 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용자금, 보증지급금 등의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설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 1천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이익잉여금 9백만원은 조합원사의 지분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 조합은 범상 영리법인입니다만, 조합원들께서 출자하시고 조합원들께서 부담하는 수수료와 용자이자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조합의 특색상 조합의 영업이익 극대화에만 중점을 둘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이익과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 내지 균형을 고려한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저희 조합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 및 세무조정과 조합 감사의 감사를 거쳤으며,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조합과 조합원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조합을 후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내빈과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에도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1차 총회(임시) 축사 조합의 비약적인 발전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오늘 우리 설비건설공제조합 제21차 총회를 맞이하여 건교부 정삼정 건설지원팀장님, 정승일 명예회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찬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민간건축부문의 신규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등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설확대와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원·하도급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실질적으로 서로 공생하는 수평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 조합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합이 탄생한 후 IMF 위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과 원자재 파동,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은 창립대비 자본금이 148% 성장하였고, 조합원 수는 75%가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조합이 조직의 효율화, 전문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을 통해 업계의 발전과 안정적 경영지원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조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조합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윈스 톱 서비스 확대, IT서비스 혁신, 그리고 신용평가모델을 개선하는 등, 고객감동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은 향후 다가올 보증시장 개방 등 무한경쟁 체제에 대비하여, 조합원사의 작은 의견에도 귀기울임은 물론, 보증수수료 요율 인하와 전면 신용거래정착 등 조합원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의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조합원의 출자지분 가치가 상승하고, 이익이 환원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 업계의 발전 토대 또한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 여러분들은 올해의 목표로 설정한 ‘조합원과 하나되는 조합’이 실현되어, 조합원사에게 신뢰받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합의 총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대의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1차 총회(임시) 개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는 지난 2월 24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 정삼정 건설지원팀장과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 정승일 명예회장 등 전국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총회(임시)를 개최하고, 2005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2005년도 경영성과 보고결 결산서(안)은 △조합 창설 당시 조합원사는 2,960개 사였으나 2005년 12월 말 현재 5,189개 사로 75% 증가 △자본금은 1,500억원에서 2,218억원이 증가한 3,718억원으로 148% 성장 △좌당 지분액은 창설 당시 824,000원보다 84,050원이 증가한 908,050원 △수익은 영업수익이 108억5,0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26억7,000만원으로 합계 235억2,000만원 △비용은 영업비용 229억4,000만원, 영업외비용 3억7,000만원으로 합계 233억1,000만원 △경상이익은 2억800만원이고, 동 이익금에서 법인세 1억9,700만원을 공제하면 순이익은 1천100만원이며, 당기 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 900만원은 조합원사의 지분액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조합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보증수수료 요율을 평균 30% 인하하여 조합원사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4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G2B 전자보증 외에 조합원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1월부터 일부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보증채권자에게 인터넷으로 보증서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보증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이찬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조합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경영목표를 ‘조합원과 하나되는 조합’으로 정하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10년이 우리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성장할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 아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다”면서 “조합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소하는 살아 움직이는 조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은 축사에서 “조합은 향후 다가올 보증시장 개방 등 무한경쟁체제에 대비하여, 조합원사의 작은 의견에도 귀기울임은 물론, 보증수수료 요율 인하와 전면 신용거래정착 등 조합원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조합의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조합원의 출자지분 가치가 상승하고, 이익이 환원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 업계의 발전 토대 또한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